

이효리 "어딜 가도 순심이 있어" 눈물

등록 2022.12.31 11:40:33



[서울=뉴시스] '캐나다 체크인' 2022.12. 31.(사진 = tvN '캐나다 체크인' 예고편 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진 기자 = 가수 이효리가 하늘나라로 간 반려견 '순심이'와 똑닮은 강아지를 만나 눈물짓는다.

31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되는 tvN '캐나다 체크인'에서는 이효리가 캐나다로 입양 보낸 강아지들을 보며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일명 '크레이지 독'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잔뜩한 강아지로 변한 링고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효리는 링고와 더 없이 따스한 링고 가족에게 에너지를 얻는다.

이후 '공길 언니' 고인숙과 함께 가브리올라 섬에 사는 강아지 라이언을 만나기 전, 서핑 성지인 토피노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이효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캐나다의 비현실적인 풍경들은 보는 이들에게도 힐링을 선물할 예정이다.

페리와 캠핑카를 타고 장장 5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한 토피노 캠핑장에서는 이효리와 공길 언니의 내공 가득한 캠핑 요리가 공개된다. 이효리는 캠핑에 감성을 더하는 모닥불 옆에서 공길 언니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요즘 꼭 빠진 최애 아이들부터 캐나다에서 다시 만난 강아지 이야기 등 진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이효리의 첫 번째 반려견으로 그의 곁을 떠난 순심이와 똑 닮은 강아지가 나타난다. 토피노 캠핑장과 붙어있는 바닷가를 걷던 중 순심이와 닮은 강아지를 발견한 이효리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린다.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예고편에서 "내가 말했잖아. 어딘가에서 (순심이가) 똑같이 살고 있을 거 같다고"라며 눈물을 닦아 감동을 예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telemovi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